

사회

■ 수십명이 '장애 여성 성폭행' 장흥 관산읍 마을 표정

“집승보다 못한... 고개들고 살겠나”

수사 장기화로 피해 여성·가족 상처 깊어져  
쉼터 등 시설 미비... 농촌 장애인 대책 허술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알면서도 쉬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누가 함부로 말도 못 꺼내고...”  
지난 18일, 19일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찾은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에 둘러싸인 관산읍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자욱한 안개로 취재진을 맞았다. 2900여세대 6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관산읍은 취재진이 읍내를 들어서자 여느 시골과는 달리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마침 취재진이 사건이 일어난 마을을 찾은 18일 오후에는 광주지방경찰청의 인화학교 성폭력 수사 결과 발표와 광주시청의 인화학교 법인 인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터라 또 다른 ‘인면수심’을 접하는 마음은 무

겁이만 했다.  
피해자(여·21)의 집에서 불과 70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이날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친척 이모(58)씨를 비롯해 윤모(71)·위모(77)씨 등의 점포가 있었다. 구속기소된 이씨의 가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으며, 불구속 기소된 윤씨와 위씨의 가게 문은 아직도 열려있었다.  
‘지적장애여성 마을 주민 성폭행 사건’을 아느냐는 질문에 주민 한 명은 “무슨 소문을 말하든지 모르겠다”고 당혹해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인근에서 담소를 나누던 70~80대 할머니들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무슨 시골 동네에서 그런 사건이 있겠느냐”라

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돌아서자 곧바로 “그 양반들(가해자들) 말하는 모양이네...”라며 혀를 찼다.  
19일 만난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천안에서 살다가 고향도 그리고 장애 때문에 딸아이를 도저히 버스를 태워 학교를 보낼 수 없어 10년 전에 장흥을 다시 찾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후회스럽다”며 “평소에도 겁이 많은 아이인데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지난 1년 동안 그와 가족들이 겪었던 슬픔도 컸다. 올 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마을에 말을 들 수 없어서 순천의 한 쉼터로 보내야했고, ‘최근에는 딸아이 합의를 이유로 한뫼 쉼터’라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자들은 버젓이 동네에서 살고 피해자는 1년 가까이 외지에서 지내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 초 담당 검사가 교체됐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장흥지청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복지시설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사를 했으나 그래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의 한 친구는 “친구들조차도 쉽게 상황을 물어보지 못한다.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안타까웠다”며 “수사가 빨리 진행돼 관련자들이 조속히 처벌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지적장애 여성 한 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장흥군 관산읍 전경. 지난 19일 겨울비가 추추추추 내리면서 마을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땅문서까지 걸고 ‘비닐하우스 도박’

농촌서 10억대 상승 도박 36명 검거

농촌 비닐하우스와 펜션 등에서 상승적으로 혼성도박을 벌여 온 일당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흥경찰은 20일 “한적한 농촌 지역에서 상승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도박 개장 및 상승도박)로 김모(31)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혼성도박 가담자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 초까지 장흥, 보성, 강진 등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와 펜션 등에서 관둔 혐의(도박 개장 및 상승도박)로 김모(31)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혼성도박 가담자 33명을

도박 참가자 모집책, 운반책, 연락책, 돈주, 문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박 가담자 중 택시기사와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는 땅문서와 집문서까지 담보로 잡히고 남기는 등 패가망신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땅문서를 담보로 잡고 도박을 한 후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에 걸친 기

획수사를 통해 도박단을 검거했다. 경찰은 도박 장소, 대출금 등이 기재된 장부 8권과 화투, 카드, 통장 30개, 차용증·각서 10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도박꾼들이 농한기를 맞은 농촌 주민들을 도박에 끌어들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도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노숙자 궤어 신안 염전에 팔아

부산북부경찰, 인신매매 일당 붙잡아

지하철·터미널에서 생활하는 부산 지역 노숙자들을 전남지역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안의 염전이나 고기잡이 어선에 팔아넘긴 인신매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은 20일 노숙자를 염전과 고기잡이 어선 등에 팔아넘긴 혐의(영리 유인 등)로 택시기사 임모(48)씨와 염전업자 박모(3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 택시기사 2명은 지난 2월 부산시 북구 구포역에서 뇌병변 4급 장애인인 노숙자 박모(34)씨 등 2명

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목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고모(68)씨와 장어잡이 업자 서모(42)씨 등에게 남기고 4차례에 걸쳐 소개비로 500만원을 받아왔던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로부터 노숙자를 넘겨받은 직업소개소장, 염전업자와 등 5명은 노숙자 박씨 등 2명을 신안의 염전 3곳과 장산도의 한 장어잡이 잡부로 125일 동안 일을 시키고 38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 징계 적법”

광주지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남 지역 교사 고모(50)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업성

취도평가는 교육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데도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2009년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학교 정문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감봉 2월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러니 등록금 비쌀 수밖에...

재판부, 사학비리 강력 질타

유영구 전 KBO총재 7년 선고

교비를 빼돌리고 학교법인 재산을 매각해 자신이 운영한 건설사에 수천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받았던 유영구(65)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등 2천억원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유 전 총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교육 용도로 쓰여야 할 학원의 재산과 등록금을 영리

법적인 명지건설 지원 명목으로 불법 유용했고 교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조성한 기금까지 횡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총재가 1997년부터 교비를 담보로 대출받아 유용한 돈이 거의 1조원에 육박한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명지대학교 등 산하 학교 등록금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도 이같은 비리와 관련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재는 2004~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를 명지건설에 매각한 대금 340억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학원 채무부제에 쓰는 등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화순군수 보선 후보 비방

학원강사 벌금 400만원

광주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황병현)는 20일 “화순군수 보궐선거에서 한 무소속 후보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윤병학원 강사 조모(65)씨에 대

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중당 후보의 선거연설이었던 조씨는 화순군수 보궐선거를 4일 앞둔 지난 4월23일 오전 11시께 화순군 화순읍 모 건물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가 유권자에게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대접해 검찰에 고발됐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급식업체서 4억원 받은

익산 모 여고교장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8일 급식업체에서 4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로 익산시내 모 여고 교장인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친인척에게 급식 운영권을 주고 이들에게서 4억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도 교육청은 지난 5월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이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학교는 물의를 빚자 4억6000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업주·공무원 협박 공짜술 먹고 돈 뜯어

○영세 주점 업주와 공무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 달 사이 40여차례에 걸쳐 119구급차를 이용한 40대 ‘공공의 적’이 경찰서 행.

○20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공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모(48)씨는 지난달 26일 여수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깐의 고공 위반 등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업주 A(여·52)씨에게 ‘신고를 취하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6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공짜 술을 먹거나 금품을 뜯어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여수시청 공무원을 협박해 택시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으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등 구급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고 귀띔.  
/중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Advertisement for 'Donbandi' (돈잡는반디)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LED lights, downlights, and sensors. Includes contact info for Kwangju, Jeonnam City/City District/County and website www.donbandi.net.